

나주 배 농가 '소득 낮고 빚 많다'

■나주시 2,124농가 조사

나주지역 배 농가의 절반 이상이 연간 소득액 3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부채는 4천만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가 '나주배 희망 100년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로 순천대에 의뢰해 실시한 배 농가 전수조사 결과 전체 2천124농가 중 연간 소득액 3천만원 미만인 전체의 55.2%인 1천173농가에 달했다.

반면 3천만~5천만원은 444농가(20.9%), 5천만~7천만원은 241농가(11.3%), 7천만~1억원은 117농가(5.5%)였으며 1억원을 웃도는 곳은 149농가로 전체의 7%에 불과했다.

평균 판매액 3,546만원 불구 부채는 4,158만원

'연 소득 3천만원 미만' 55% ...1억 이상은 7%

재배농 평균 연령은 62.4세로 이미 환갑을 넘겼으며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의 경우 평균 54.6세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을수록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배 농가의 평균 판매액은 3천546만원이나 부채액은 4천158만원으로 빚더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후계농이 있는 경우는 15.2%에 그쳤다.

한편 나주 배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자의 40.2%가 당도를 꼽았으며 이어 과형(17.6%), 토질개선(8.8%), 품종경신(8.5%), 착색(6.3%) 순으로 나타났다.

배 농가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선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친환경농자재(18.5%), 농기계 (17.9%), 과원관리시설(17.4%), 유통 및 가공시설(16%)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결과 농가의 57%가 추석 전에 출하를 하고 있으며 판매처별로는 공판장 42.4%, 개인판매 22.6%, 배원협 9%, 발매기 7.7% 순으로 집계됐다.

나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주 배의 재배, 생산, 유통, 가공 실태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해 체계적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14개월간 배 재배 농가 2천124가구를 대상으로 경영실태, 정보화, 유통 현황 등 60여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배 주산지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지금까지 배 농가의 실태와 현황 등을 파악한 자료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사가 배 산업 활성화와 명품 배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담양 최고 인기 관광지는 죽녹원

올들어 41만여명 찾아...소쇄원·죽물박물관 뒤이어

담양의 유료 관광지 가운데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죽녹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양군이 지역내 주요 유료관광지 8곳의 관광객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곳은 죽녹원으로,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41만2천여명이 방문했다.

이는 8곳의 관광객 누계 74만6천여명의 55.2%에 해당한다.

특히 여름 휴가가 집중된 지난 7~12월에는 평소 하루 평균 방문객 1천832명의 두 배가 넘는 4천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죽녹원에 유료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것은 죽림욕을 즐긴 뒤 인근 관방제원과 영산강이 시작되는 담양천 등을 둘러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죽녹원 다음으로는 소쇄원에 10만9천여명이 다녀갔으며 대나무박물관(9만여명), 금성산성(3만8천여명), 가사문학관(3만2천여명), 가마골 생태공원(3만2천여명) 순으로 관광객이 많았다.

/담양=정필수기자 bungy@

여수산단 '대기 오염' 법정 가나

순천시 "신도심 대기 환경 갈수록 악화" 소송 검토

대기오염 측정망 3~5곳 늘려 피해사례 전면 조사

순천시가 인근에 위치한 여수국가산업단지로 인해 대기환경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수산단 입주업체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순천시에 따르면 15~20km 가량 떨어져 있는 여수산단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순천까지 날아들고 있어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산단과 인접해 있는 신도심 지역의 대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 6월 신도심 인연항을 시립도서관 옥상에 대기

오염망을 설치해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시는 이들 자료를 구도심인 장전동 시청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된 대기오염 수치를 비교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통계자료 없이도 사람이 느끼기에 신도심 지역의 대기환경이 구도심에 비해 좋지 않다"며 "두 곳의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된 수치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등 여수산단으로 인한 대기환경

피해 사례를 전면 조사한 뒤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차로 여수산단 입주업체 중 규모가 가장 큰 GS칼텍스 등을 소송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법정에서 대기오염 피해 사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망을 3~5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은 여수산단 조성된 1960년대 후반부터 대기오염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보았는데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여수산단에 입주한 대기업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도록 시민의 합의를 거쳐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지광원기자 light64@



"아름다운 남도 어촌 체험해 보세요"

고흥군 포두면 남성마을에서 지난 15·16일 이틀간 '가고픈 바다, 살고픈 어촌, 다시 찾고 싶은 어촌체험'이라는 주제로 '2008 남도 어촌 체험행사'가 열렸다. 이번 체험행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5가족 80명이 참가해 전통 어구인 후릿그물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고흥군 제공)

전남도 '아동행복마을'

22개 시·군으로 확대

전남도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교육·건강·복지분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행복마을' 사업을 관내 22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

'아동행복마을'은 지난 2006년 기업 후원 등으로 광양·장흥·진도에 '위스타트 센터'를, 보건복지가족부 국비사업으로 여수·강진·나주·보성에서 '드림스타트 센터'를 개설해 2천여명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에게 건강·교육·복지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희종기자 chae@

"농어촌지역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세요"

전남도 2천~4천만원 저리 융자 등 적극 유도

전남도가 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뛰어난 단열효과와 저렴한 비용 때문에 지난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 당시 대량 보급됐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가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는 등 석면의 폐해가 명백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에는 아직도 상당수 주택의 지붕이 석면 슬레이트 상태여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더욱이 석면은 10~3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수 농어민들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유해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인식하더라도 열악한 가계 형편상 지붕 개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주택개량사업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한층으로 개량할 시 우선 추진토록 배려하고 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연관사업 추진시에도 슬레이트 지붕을 친환경 건축자재로 개량토록 지역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선정시 최우선적으로 선정, 2천~4천만원의 장기 저리 융자(5년 거치 15년 상환, 연 3%)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06년 9월 1일부터 석면 및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으며, 프랑스는 1997년부터, EU는 1999년부터 석면 및 석면이 첨가된 제품의 유통 및 사용을 금지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부터 석면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재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

지리적 표시 등록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이 고로쇠로는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았다.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에 대해 '지리적 표시' 등록 심사위원들의 현지 확인과 인지도 조사, 타 지역의 성분 비교 등을 거쳐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

백운산 고로쇠는 지난해 12월 등록 신청을 한 이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리적 표시'를 획득한 것으로 전남도는 등록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생관리를 위한 품질관리 대책과 브랜드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은 전국 생산량의 약 18% 가량을 차지하며 연간 30억여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재희종기자 chae@

목포 연안여객선 요금 12~15% 인상

목포를 중심으로 신안, 완도, 진도 등을 운항하는 여객선 요금이 대폭 올랐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18일 "목포~신안 가거도와 제주도 등 18개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사의 '운임(요금) 변경 신고'에 따라 원가 분석

을 통해 12~15%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포~신안 가거도를 운항하는 쾌속선 요금은 4만8천600원에서 5만5천900원으로 15% 인상됐고 목포~흑산 흥도는 3만3천600원에서 3만7천900원으로 12.8% 올랐

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목포~제주 카페리 여객선 요금은 특등실이 7만8천500원에서 9만원으로, 3등실은 2만2천100원에서 2만5천원으로 각각 14.6%와 13.1% 인상됐다.

여객선사들은 지난 2월 이후 면세 유 가격이 40% 정도 올라 적자 운항을 하고 있다며 요금을 20% 이상 올려줄 것을 요청해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호국 성지' 인연, 영·호남 화합으로

강진 병영면-울산 병영 2동, 4년째 동서교류

"나라를 지킨 호국 성지의 자존심을 영·호남 화합으로..." 조선시대 호국성지의 역할을 했던 강진 병영면과 울산 중구 병영2동이 4년째 끈끈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울산 중구 병영2동 김선수 자치위

원장과 주민 등 40여명은 최근 청자 문화제 기간 동안에 강진 병영면을 방문, 문화교류 등 우의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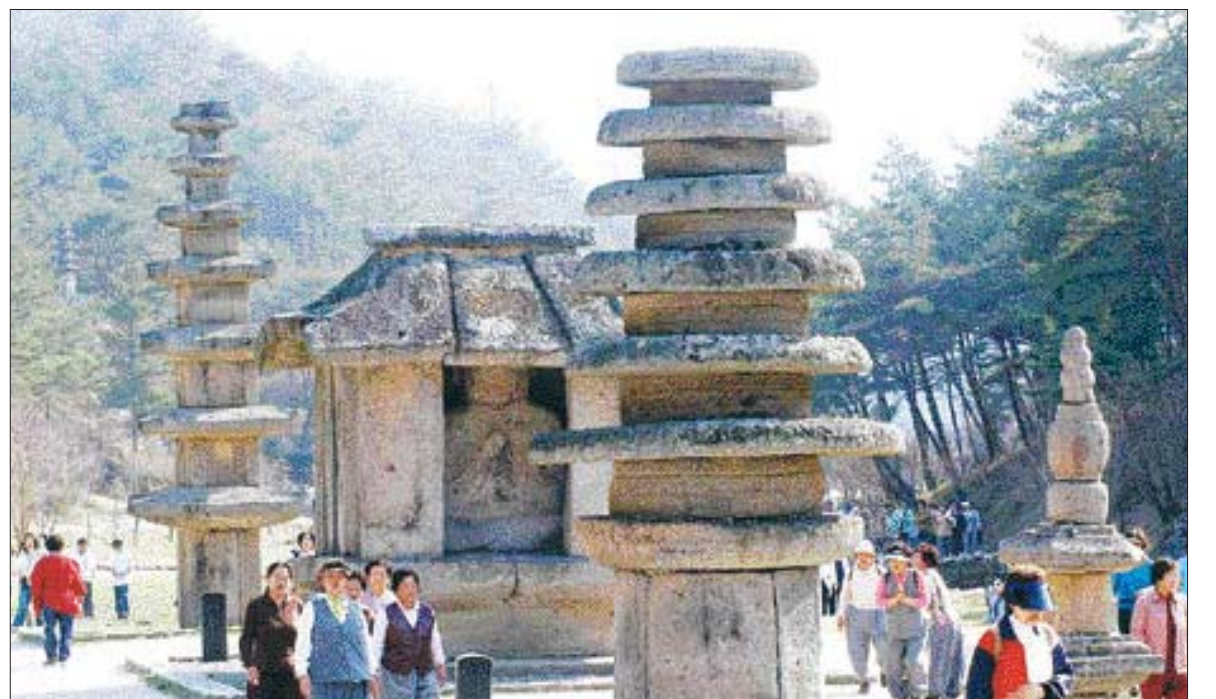
강진 병영면이 울산 병영2동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5년, '병영(兵營)'이라는 이름이 보여 주듯 두 지역은 조선시대 대표

적 군사요충지로 전라병영성과 울산병영성이 있었던 곳이다.

축조 시기도 1417년 같은 해로 전라병영은 제주도를 포함한 호남 지방 육군 총지휘부 역할로, 울산병영은 경상좌도병영으로 왜구의 침략을 막으면서 500여년간 국토를 지켰다.

강진군과 울산 중구는 이 같은 인연을 계기로 자매결연을 해 축제 참가와 체육대회 개최 등 인적·물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화순 운주사가 공공편익시설과 휴양문화시설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된다.

'천불천탑' 화순 운주사 일대 관광지로 개발

전남도, 2013년까지 116억 들여 휴양문화시설 등 조성

신비로운 천불천탑(千佛千塔)으로 잘 알려진 화순 운주사 일대가 관광지로 개발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공공자금 96억원 등 116억원을 들여 운주사가 있는 화순군 도암면 용강리 일대 10만5천495㎡를 공공편익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을 갖춘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공공시설로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되고 다목적 운동장과 휴게광장, 야외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또 미륵정원, 불교문화관, 연못, 습지연못 등의 휴양문화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 복합상가 시설도 갖추게 된다.

운주사는 그동안 명성에 비해 개발계획에 운주사가 포함된 이후 개발구상이 구체화됐다. 올 5월에는 관광지로 지정됐으며 최근 운주사 사찰 인근 문화재, 교통·재해·환경성 검토, 농지전용 협의도 마무리됐다.

전남도는 관광지 조성계획 등에 관해 세부적인 검토작업을 거쳐 관련법에 따라 이번 주 안에 조성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운주사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에 비해 찾는 사람들이 적었는데 관광지로 개발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운주사는 도선(道詵)이 세웠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법당과 석불, 석탑이 많이 훼손돼 폐사로 남아 있다가 1918년 중건됐다.

보물 제 796호인 9층석탑과 보물 제 797호인 석조불상, 보물 제 798호인 원형다층석탑, 부부 와불(臥佛) 등이 밀집해 있어 신비스러운 사찰로 알려져 있다.

/재희종기자 chae@kwangju.co.kr